우리금융에프앤아이㈜ Woori F&I Inc.

선임연구원 지형삼 02.2014.6226 jihs@nicerating.com 금융평가1실장 김기필 02.2014.6236 kipil@nicerating.com

평가등급

A2-

평가내역		유효등급	
평가대상	기업어음	단기신용등급	A2-
평가종류	본평가		
등급확정일	2022.06.21		
등급유효기한	2023.06.30		

PROFILE

구 분	실 적		전 망
사업위험			BBB
재무위험			A
전망/기타고려요인	+	0	-
계열관계요인	+	0	-

평가등급 추이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 배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재무제표기준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구 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3**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3
영업이익						-3
당기순이익						-3
총자산						2,006
NPL 투자자산						666
자기자본						1,994
총차입금						0
총자산영업이익률(%)						-0.6
총자산순이익률(ROA)(%)						-0.6
레버리지배율(배)						1.0
차입금의존도(%)						0.0
ROA(Peer)	1.6	1.0	0.7	0.7	5.0	n.a.

회사제시자료 기준(재무지표 수치는 검토받지 않은(unaudited) 수치임)
회사는 2022 년 1 월 설립되었음
NPL투자자산=투자사채+유동화채권+매각예정비유동자산
ROA(Peer)는 연합자산관리, 대신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 키움에프앤아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5 사 평균 기준임 (2021 년 수치는 연합자산관리, 대신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 키움에프앤아이 4 사 평균 기준, 2021 년 이전 수치는 연합자산관리, 대신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 3 사 평균 기준임)

평가 근거

등 급

- 자본여력 및 계열지원을 기반으로 NPL 시장 내 사업기반 점차 확대될 전망
- 투자자산의 담보가치 고려 시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
- 계열의 재무적 지원 및 자체 이익누적 등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 관리 전망
-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의 비경상적 지원 가능성

평가 등급

NICE신용평가㈜는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이하 '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로 평가한다.

등급 핵심논거 : A2-

회사는 2022 년 1 월 설립된 부실채권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이다. 2022 년 3 월말 기준 우리금융지주가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NPL 시장 내 사업기반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회사는 사업초기 단계로 NPL 투자자산 보유 잔액 등 사업규모가 경쟁 업체 대비 열위한 수준이다. 다만, 2,000 억원의 설립자본금과 우리종합금융 내 NPL 전문인력 및 영업력 이관에 따른 내재된 사업역량 등을 바탕으로 2022 년 1 분기 1,361 억원(미상환원금잔액 기준)의 투자실적(NPL 입찰시장 점유율 2 위)을 기록하였다. 회사의 자본여력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열의 지원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업권 내 사업기반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경쟁자의 진입 등으로 NPL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비은행사업 강화 추세 및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계열에 대한 지원 의지 등을 고려 시 회사의 사업기반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초기 단계의 NPL 투자전략 및 투자자산의 회수 속도, 대손비용률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회사는 사업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부실채권 회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정된 자본으로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NPL 투자 시 후순위사채 인수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고위험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투자 리스크 증가 및 대손비용 확대 가능성 상존 등 부담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19 관련 원리금상환유예조치 등으로 인한 NPL 매각 물량 감소, 업권 내 신규 경쟁자 진입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신정부 주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중기적으로 금리상승 등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NPL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하여 향후 회사의 부실채권 투자 전략 및 투자자산의 회수 속도, 대손비용률 추이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NPL 자산의 담보가치 고려 시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부채권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회수실적이 변동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투자자산의 담보물건 가치 등을 감안 시 자산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NPL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평균 매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경기 둔화 시 회수율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은 수익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열 지원 및 자체 이익누적 등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전망이다. 설립 초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2022 년 3 월말 기준 레버리지배율은 1.0 배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향후 본격적으로 NPL 자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차입금 의존도 및 레버리지배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현 수준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과소한 상황으로 NPL 자산 신규 투자 시 레버리지배율 변

동폭이 높은 편이지만, 계열의 재무적 지원 및 자체 이익누적 등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전망이다.

유사 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존재한다. 회사는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배지분을 확보한 자회사로 수익다변화 측면에서의 그룹 내 회사의 역할 및 최근 그룹의 비은행 계열 강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망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건전성이 매우 우수하게 유지됨에 따라 NPL 시장 성장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원리금상환유예조치가 2022년 9월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향후 은행부문의 부실자산이 증가할 경우 NPL 시장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2년 10월 시행 예정인 신정부 주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NPL 출하 물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일부 코로나19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채무감면 지원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부실채권의 출하 이연 여부 및 NPL시장 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회사는 2022년 1월 설립되었으나, 계열기업인 우리종합금융의 전문인력 이동 등을 통해 투자 Know-how 등 관련 업무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일 현재 계열 내 NPL투자는 회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비은행부문 강화 및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등을 고려할 경우 계열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2,000억원의 설립자본금과 NPL 투자역량을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1,361억원(미상환원금잔액 기준)의 투자실적(NPL 입찰시장 점유율 2위) 및 2022년 2분기 NPL 투자자산 투자 실적(미상환원금잔액 기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다. 향후 NPL 시장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업권 내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의 자본여력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열의 지원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업권 내 사업기반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및 대내외 경기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산 회수 지연으로 인한 대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회사의 영업자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레버리지배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NPL투자업종에서의 사업기반 및 경쟁지위 제고 여부, 수익성 추이 및 NPL 투자자산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향후 NPL 투자자산을 포함한 회사 총자산 규모, 총자산순이익률(ROA), 단순자기자본비율(레버리지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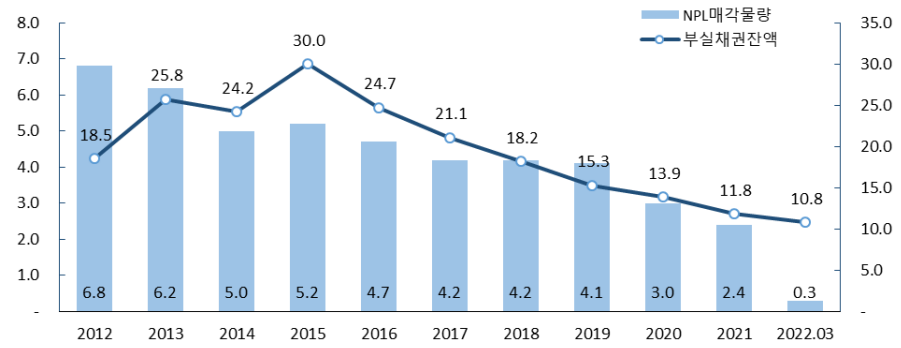
회사는 2022 년 1 월 설립된 부실채권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이다. 2022 년 3 월말 기준 총자산 2,006 억원 및 자기자본 1,994 억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가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위험

은행 부실채권규모 감소로 NPL 시장 성장 제한적인 상황

2022 년 3 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10.8 조원이며, 매각규모는 약 0.3 조원 수준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 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유동성 공급 및 여신건전성 분류 유예 조치로 2020 년 및 2021 년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 19 관련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조치가 2022 년 9 월말까지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실자산 매각 규모가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로나 19 관련 원리금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취약업종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2022 년 10 월 시행 예정인 신정부 주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NPL 출하 물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향후 부실채권의 출하 이연 여부 및 NPL시장 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그림 |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NPL 매각물량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주: 부실채권잔액=고정이하여신(일반은행+특수은행)

NPL 시장 내 사업기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 NPL투자시장은 연합자산관리, 대신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가 과점적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등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구도를 보여왔다. 최근 키움에프앤아이가 시장 내 신규 Player로 진입한 이후 2022 년 1 월 회사가 NPL 시장에 신규 진입하며 향후 NPL 시장 내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사업초기 단계로 NPL 투자자산 보유 잔액 등 사업규모가 경쟁 업체 대비 열위한 수준이다. 다만, 2,000 억원의 설립자본금과 우리종합금융 내 NPL 전문인력 및 영업력 이관에 따른 내재된 사업역량 등을 바탕으로 2022 년 1 분기 1,361 억원(미상환원금잔액 기준)의 투자실적(NPL 입찰시장 점유율 2 위) 및 2022 년 2 분기 NPL 투자자산 투자 실적(미상환원금잔액 기준) 시장 점유율 2 위를 기록하였다. 회사의 자본여력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열의 지원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업권 내 사업기반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경쟁자의 진입 등으로 NPL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비은행사업 강화 추세 및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계열에 대한 지원 의지 등을 고려 시 회사의 사업기반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 연결기준 자산구성 단위: 억원, %

구 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3
현금및현금성자산						961
대체투자자산						0
NPL투자						666
기타						363
총자산						2,006
NPL자산 비중						33.2

자료: 회사 제시자료
주: 2022.01 설립

사업초기 단계로 향후 NPL 투자전략 및 투자자산의 회수 속도, 대손비용률 등 모니터링 필요

회사는 사업초기 단계로 부실채권의 보유 잔액 등 사업규모가 경쟁 업체 대비 열위한 편이며, 부실채권의 추심이익 역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생 회사 특성상 당분간 총자산 대비 판관비 부담률이 Peer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적극적인 NPL 자산 확대 시 자산규모 증가 효과 등을 기반으로 판관비 효율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한정된 자본으로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NPL 투자 시 후순위사채 인수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고위험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단기 투자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 증가 및 대손비용 확대 가능성 상존 등 부담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원리금상환유예조치 등으로 인한 NPL 매각 물량 감소, 업권 내 신규 경쟁자 진입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신정부 주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중기적으로 금리상승 등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NPL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하여 향후 회사의 부실채권 투자 전략 및 투자자산의 회수속도, 대손비용률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 상승 시 향후 회사의 조달비용률이 과거 Peer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조달비용률은 회사의 사업 안정화 및 수익성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표 | 연결기준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1.1~3	2022.1~3
이자수익						3
이자비용						0
대손상각비						0
판매관리비						5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3
영업이익						-3
당기순이익						-3
ROA(%)						-0.6
조달비용률(%)						0.0

자료: 회사 제시자료
주: 2022.01 설립

재무위험

NPL 자산의 담보가치 고려 시 투자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낮음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산은 NPL SPC가 발행한 유동화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투자자산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아파트, 상가, 공장 등)에 대해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부채권이다. 주 영업자산 대부분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어, 지방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회수실적이 변동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 전반적으로 2018 년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던 NPL자산 매입률이 최근 2021 년 이후 재차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관련 원리금상환유예조치 등으로 부실채권 출회가 상당부분 유예되는 등 NPL 매각물량의 축소, 시장 내 입찰경쟁 심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NPL자산의 담보물건 가치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산의 최종적인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NPL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평균 매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경기 둔화 시 회수율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 수익성에 부담요인이 상존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표 | 연도별 부실채권 투자 및 회수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3
대출원금(A)						1,361
매입가(B)						1,093
매입률(B/A) (%)						80.3
누적회수액(C)						72
회수율(C/B) (%)						6.6

자료: 회사 제시자료
주: 2022.01 설립

계열 지원 및 자체 이익누적 등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 관리 전망

회사는 초기자본금 약 2,000 억원을 재원으로 NPL 자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2022 년 3 월말 기준 레버리지배율은 1.0 배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나, 향후 본격적으로 NPL 자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차입금의존도 및 레버리지배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현 수준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과소한 상황으로 NPL 자산 신규 투자 시 레버리지배율 변동폭이

높은 편이지만, 계열의 재무적 지원 및 자체 이익누적 등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전망이다.

| 표 |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3
자기자본						1,994
총자산						2,006
총차입금						0
유상증자						0
레버리지배율(배)						1.0
차입금의존도(%)						0.0

자료: 회사 제시자료
주: 2022.01 설립

유동성 분석

장기조달 및 조달 구조 다변화 여부, NPL 자산의 회수자금 유입 속도 등 모니터링 예정

회사는 사업초기 단계로 외부자금조달이 아닌 초기자본금을 재원으로 부실채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NPL 자산 특성상 자금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조달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에 회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은행차입 등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영업 확대 과정에서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등 조달구조 다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관련하여 향후 계열의 우수한 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장기조달 및 조달 구조 다변화 여부, NPL 자산의 회수자금 유입 속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표 | 차입금 만기구조 (2022년 3월말) 단위: 억원, %

구분	~2023.03	2023.04~	계
CP	-	-	-
은행차입	-	-	-
회사채	-	-	-
차입금 계	-	-	-
비중	-	-	-

자료: 회사 제시자료 (액면금액 기준)
주: 2022.01 설립

계열 관계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체 신용도 대비 상향조정

우리금융계열은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다. 높은 시장지위,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대한 **계열의 지원능력**은 극히 우수한 수준이다. 평가일 현재 회사는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투자·인사 측면에서 계열의 통제력이 유효하게 유지됨에 따라 **지배적 긴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지주의 비은행사업 강화를 위해 계열 내 연계영업 가능성이 높아 **사업적 긴밀성**이 존재한다. 한편, 회사의 전체 금융그룹 내 총자산, 자기자본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금융지주의 사업 다각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적 긴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계열의 지원능력 및 지원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체 신용도 대비 상향조정이 이루어졌다.**

| 표 | 계열 관계 반영

항목		판단 근거
계열통합 Profile (계열지원능력)		우리금융그룹은 높은 시장지위, 안정적인 수익성 및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극히 우수한 지원여력 보유
신용의존성 (계열지원의지)		
	지배적 긴밀성	계열의 100% 지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금 · 투자 · 인사 측면에서 계열의 통제력 유효
	사업적 긴밀성	계열의 비은행사업 강화를 위한 계열 내 연계영업 가능성 등
	재무적 긴밀성	계열 내 재무적 비중은 높지 않으나, 사업 다각화 의지 등 고려할 때 재무적 긴밀성 확보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자체신용도 대비 상향 조정		

평가방법론 적용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산업별 평가방법론-금융일반기업(2019), 단기등급 평가방법론(2021),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1(2022),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2(2022), 신용평가일반론이다. 당사의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www.niceratings.com >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표 | 평가방법론 범주별 적용 결과

구 분	실 적						전 망					
	AAA	AA	A	BBB	BB	B	AAA	AA	A	BBB	BB	B
1. 사업위험										●		
(산업위험)											●	
(경쟁지위)										●		
2. 재무위험									●			
(자산건전성)										●		
(자본적정성)									●			
(유동성)									●			
3. 전망/기타고려요인					+	0		-				
4. 계열관계요인				+		0		-				

주) ●는 실적과 전망간에 차이가 발생한 지표를 의미

※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및 기타 제공받은 자료 등 입니다.

■ 회사채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부도율

기준년도: 1998 ~ 2021 년, 단위: %

신용등급	정의	연간부도율		평균누적부도율	
		협의	광의	협의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0.00	0.00	0.46	1.72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0.00	0.00	1.67	5.18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0.00	0.00	7.07	10.52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0.00	0.00	15.56	18.98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0.00	0.00	12.34	21.67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13.43	34.91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41.59	36.84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주3: 연간부도율은 2021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1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주4: 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 기업신용등급(ICR)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신용등급	정의
AA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 단기등급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단기신용등급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1: A2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 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 유의사항

NICE 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 신용평가㈜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 신용평가㈜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 신용평가㈜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 신용평가㈜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 신용평가㈜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 신용평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 신용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역외기업 및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의 경우, 역외기업이 속한 국가의 위험이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외환,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무역제도, 금융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규제 및 그 변화가 있습니다.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22.06.01 이고, 계약체결일은 2022.05.04 이며, 평가완료일은 2022.06.21 입니다.
최근 2 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용역 건수 및 총액은 각각 0 건, 0.0 백만원입니다. NICE 신용평가㈜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2 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비신용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금액은 0 건, 0.0 백만원입니다. NICE 신용평가㈜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비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